

農村의 地域的 性格을 고려한 地域開發單位檢討

全榮吉 *

* 安城産業大學校 農業經營學科

A Study on Planning Unit for Rural Development Program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Jeon, Young-Gil

* Dept.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seong Nat'l Univ.

ABSTRACT

In the study it is assumed tha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Ri within a Myeon are different in certain degrees.

This assumption implies that in some case of rural planning, Goon(county) or Myeon may be inadequate as a planning unit, because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in Myeon will vary in a considerable degre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btain knowledge relevant to ascertaining planning units by classifying entire number of Ri in Ansong Goon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regionality, namely the degree of sustaining agriculture and the degree of urbanizing.

There was a significant variation among Ri within a Myeon the degree of sustaining agriculture as well as in the degree of urbanizing.

In this study it is implied that rural program planning of Goon as a whole seems to be irrelevant. And planning Myeon level programs needs eventually adjustments in such a way of eliminating areas(Ri) which are of inconsistent character.

Some planning such as farming cooperation may be efficient if they are to be undertaken at Ri basis. If the program planning include such activities of marketing and cooperative use of facilities, a group of Ri in consistent nature of regionality can be a unit of planning.

I. 序論

1. 研究目的 및 必要性

韓國의 農村은 産業化·都市化 過程을 통해 급격한 변

화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高度經濟成長을 指向한 經濟開發政策으로 首都圈과 地方間 그리고 都·農間의 發展隔差와 그로 인해 過密·過少化를 심화시킨 國土空間의 二元的 分化現象은 經濟成長과 國民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兩側面 모

두에 障 碍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下向式 農村地域 開發政策은 農村住民의 삶의 質 향상과 國土空間의 均衡의 開發을 위해 生産活動뿐만 아니라 生活의 場까지를 포괄하는 概念으로 變化되었고, 地域主義的 開發戰略의 次元에서 中心都市와 背後農村을 統合하는 地域을 開發圈域으로 하여 地域의 特性和 地域住民의 生活에 필요한 基本的 需要를 만족시켜 地域間 均衡開發을 위한 理論的, 實踐的 努力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變化의 多樣性에 기초할 때 國土空間上에서 농촌의 역할은 地域別로 서로 다르다. 地域의 自然地理의 特性, 營農 形態, 人口構造의 變化, 工業化의 進行정도 등 地域의 성격을 나타내는 要因에 따라 地域의 問題點도 달리 파악되고 그에 따라 開發方向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農村地域의 開發政策은 전국적 농촌지역에 普遍的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에 기초하여 中央政府爲主의 劃一的인 開發政策이었다.

이러한 틀속에서 農村地域이 가지고 있는 地域的인 差別性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地域間의 比較優位性을 살린 農村地域開發計劃을 樹立하기 위해서는 地域的 特性分析이 先行되어야 한다. 巨視的 分析에 의해 各 地域의 特性을 파악할 수 있는 地域性 分析을 통해 既存의 行政區域中心으로 이루어져 온 地域開發 計劃圈域의 妥當性을 檢討함으로써 農村地域開發의 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은 그 동안 綜合的 性格의 農村地域開發 計劃樹立에 있어 既存의 邑面別 開發單位의 適切性을 판단하고 邑面 및 里別 分析을 통해 이를 比較, 檢討함으로써 地域的 特性에 따라 農村地域의 開發單位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밝히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方法

本 研究은 地域性 分析을 위한 基準으로서 農村地域內에 存在하는 두가지 要素, 즉 農村地域으로서 純農村의인 性格(農業度)과 都市化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都市化的 特性(都市化度)에 의해 地域性을 판단하였다.

地域性을 나타내는 특징을 農業도와 都市化도로 區分, 이들 各各의 特性을 보여주는 內容을 指標로 하여 要因分析을 行하여 地域類型을 區分하였다. 이렇게 區分된 各 地

域類型을 農村地域開發이란 側面에서 相互類似性이 큰 地域은 再分類하여 地域特性에 입각한 農村地域開發方向을 모색하였다.

이제까지는 郡 및 邑面을 地域類型區分의 單位地域으로 하여 地域의 等質性을 前提로 研究가 進行되어 왔지만 本 研究에서는 이런 前提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里 및 邑面單位 地域性 分析結果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고, 이의 一致與否를 통해 地域開發方向을 設定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地域性을 實證的으로 파악, 檢討하기 위해 京畿道 安城郡의 13個 邑面, 187個里¹⁾를 各各 研究對象 單位地域으로 하였다.

3. 先行研究의 檢討

우리나라에서 農村地域開發이라는 표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定住圈 概念이 도입된 第二次 國土綜合開發計劃案²⁾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 農村은 부문계획의 필요에 의해, 혹은 도시의 相對的 意味로서 開發이란 單語를 단순히 후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0年代와 70年代의 經濟 및 地域政策에서 反證될 수 있다. 이 때의 農村은 工業化를 위한 資本蓄積의 한 手段으로 資本, 勞動等의 生産要素를 都市 및 工業부문에 蠶食당해야 했다.³⁾ 農村의 低開發은 據點開發에 의한 農村地域開發政策의 결과로서 集中投資되는 地方大都市의 連繫效果가 消費財를 除外하면 주변 배후지역으로 擴散되기 보다는 대부분이 자체 都市에 누적되거나 상위 거대도시로 逆流되었으며, 成長效果가 직접 과급되는 범위는 通勤圈에 局限되었기⁴⁾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勘案할 때, 얼마전부터 보이고 있는 農村地域開發 哲學의 轉換은 當爲的인 歸結이며, 成長據點理論으로 대면되는 下向式 地域開發에서 탈피하여 아래로부터의 上向式 開發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地域社會開發이나 새마을운동등 農村開發 또는 地域農村開發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나 農村生活圈開發 및 農漁村 地域綜合開發計劃에 관한 微視的 研究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進行되어 왔다.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⁵⁾에서 農村工業政策을 適用하기 위한 計劃地域의 구분 필요성 때문에 군화분석(Cluster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11개 유형 的 계획지역으로 농촌지역을 세분하여 유형별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략적

이나마 農村工業을 육성하기 위한 地域成長 政策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특수한 目的에 의해서 우리나라 農村地域을 구분한 研究가 그동안 여러 學者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몇가지의 研究결과를 간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5년 농촌지역의 유형구분에 있어서 최양부⁶⁾는 定住生活圈 중 中心都市의 인구규모 10만을 기준으로 定住生活圈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44개 定住生活圈 가운데 도시형이 33개(22.9%), 농촌형이 111개(77.1%)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農村定住生活圈은 生態環境의 特性을 나타내는 지표(총면적에 대한 경지율), 社會經濟的 特性을 나타내는 지표(인구증감율), 立地的 性格을 나타내는 通常的인 지표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수명⁷⁾은 전국 81개 시군을 주성분분석법으로 농촌성과 도시성을 계산하여 23개 군을 표준농촌지역으로 도출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干拓地 農村의 開發戰略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1987년 이정환⁸⁾은 자연조건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제요인까지 고려하여 인자분석법과 군화분석법 등의 방법에 의해 농촌지역의 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

1990년 정안성⁹⁾은 전북지역의 155개 읍면을 대상으로 18개 지표를 이용, 주성분분석법에 의해 농업도 및 비농업화도라는 두개의 통합지표를 추출, 이를 평가척도로 하여 전북농촌지역을 네개의 유형 즉, 농업지역, 농업개발지역, 비농업화지역, 조정지역 등으로 대별한 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아홉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992년 박병태¹⁰⁾는 경상북도 영풍군 순흥면을 대상으로 지역적성구분에 의하여 農業的 또는 都市的 開發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과정과 세부적으로 농업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의 능력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을 결정하는 두 단계의 研究를 하였다.

먼저 주성분분석법에 의해 농업적인 특성과 도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각각 15, 10개의 지표를 분석, 농업적인 농촌과 도시적인 농촌으로 구분하였고, 농촌지역의 合理的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토지를 지세와 토성을 고려, 용도를 지정하고 토지로서 적합한 지역을 토지의 等級과 土壤의 潛在力을 고려한 土地生産 能力別 분류에 따라 토지를 農耕地와 住居地로 구분, 이를 지도화하였다.

1993년 김경수¹¹⁾는 양산군의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地域開發水準을 측정하기 위해 9개 부문 30개 변수들의 표준

화점수(Z-score)를 산출, 이를 부문별로 평균을 계산, 해당부문의 연구대상지역별 개발수준을 측정한 후 이를 근거로 각 부문의 지역별 개발수준의 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9개 부문별 점수를 요인분석을 행하였고 또한 군화분석에 의한 지역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한국의 농촌지역의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考察한 바와 같이 거의 모두 行政區域인 군을 분류단위로 하여 郡내부의 同質性을 전제함으로써 自然條件의 異質性을 간과할 수 있는 脆弱性을 안고 있다. 그러나 1980年代 以後 農村地域開發에 있어서 定住圈概念이 도입되어 계획단위지역이 군 단위로 합의가 됨에 따라¹²⁾ 농촌개발은 綜合開發의 性格을 띠게되었다.¹³⁾ 군 단위 농촌개발은 농촌을 그 중심 도시와 技術的으로 통합된 集체 즉, 하나의 生活空間으로 파악한 후에 農業開發의 水準을 넘어선 空間的 綜合開發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¹⁴⁾. 이러한 지적은 농촌지역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이론과 기법의 불완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된 농촌지역 구조에 입각한 計劃의 不在를 암시한다.

이명수¹⁵⁾와 송인성¹⁶⁾은 地域開發計劃의 樹立에서 실증분석과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최재돈¹⁷⁾은 군 단위 綜合開發計劃 수립에서 지역특성과 여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정환용¹⁸⁾은 역시 지역의 계속적인 자위적 개발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황희연¹⁹⁾은 모든 開發計劃은 각 지역의 傳統과 鄉土愛에서 출발되어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적 독자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地域開發에 있어 지역특성의 반영은 최양부, 유우익에 의해 具體的으로 提示된다. 최양부²⁰⁾는 農村計劃의 一般化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표준농촌지역의 설정, 농촌정주체계, 합리적 토지이용과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지정, 농촌계획기법 등에 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유우익²¹⁾은 농촌지역개발의 연구과제로 농촌지역에 대한 유형구분과 농촌지역의 취락계층체계 및 그것을 바탕으로 발달되어 나갈 交通·通信網의 構成을 지적하였다.

Rondinelli는 地域開發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지역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분석을 위한 조작적 틀의 부족, 효율적 開發計劃을 樹立하는데 필요한 농촌지역 자료의 부족과 이들 자료의 낮은 신빙성을 지적했다. 그러한 문제점의

극복하고, 지역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UFRD(Urban Function in Rural Development) 개념을 주장했다.

UFRD는 農村의 生産性과 收入을 增大시키기 위해서 도시기반기능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투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전략에 의해 필리핀의 Bicol River Basin에서 그 체계가 갖추어졌다.²⁰⁾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강조하는 UFRD의 지역분석과정은 지역자원분석·정주체계분석·공간연계분석·접근성분석을 통해 기능격차를 파악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地域開發의 目標을 이룩하기에 적합하고, 均衡成長을 促進시킬 수 있나를 평가하여 공간개발전략을 구상하는, 일련의 응용된 지역분석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문지향적이기 보다는 장소지향적인,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일련의 통합된 다부문적(multisectional)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모형인 UFRD에 의한 지역분석 방법론을 상향적 측면에서 보완하여,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지역분석 항목으로 지역자원·인구구조 및 규모, 입지적 조건(접근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 선정하여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4. 研究의 限界

本 研究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限界를 가지고 있다.

첫째, 研究對象 單位地域을 里로 하는데 따른 問題點이 다.

本 研究에서의 研究對象 單位地域을 里로 設定한 이유는 研究對象 單位地域이 보다 광범위함으로 인해 지역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문제,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자료 자체의 신빙성 등 두 問題를 考慮, 資料蒐集에 보다 客觀性을 찾고자 했지만 資料의 信憑性의 問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 選定된 指標가 地域의 特性을 完全하게 說明할 수 없다는 점이다.

農業的 性格과 都市的 性格을 가장 잘 나타냄과 동시에 地域開發을 위한 各各의 地域的 性格을 가장 잘 보여주는 指標의 設定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객관적인 地域性을 나타내는 指標開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本 研究에서는 各各의 地域性을 나타내는 指標를 選定, 分析을 했지만 指標의 代

表性과 適合性의 問題는 있다. 分析結果 農業度와 都市化度가 各各 I等級 또는 III等級 地域의 抽出은 이런 問題와 매우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邑面單位의 地域性을 나타내는 變數와 里別 地域性을 나타내는 變數는 달라야 하는데, 本 研究에서 邑面別 變數는 本 研究方法인 要因分析의 前提인 研究對象地域數와 變數와의 關係를 고려, 里別 要因分析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變數를 選定함으로써 客觀性에 問題가 있다.

넷째, 대부분의 地域性 分析을 위한 指標가 1993年 現在를 基準으로 한 것이므로 時間의 經過에 따른 農村地域의 時間的 變化패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다섯째, 地域計劃에 있어 特定地域의 特定開發을 圖謀(確定)하려는 경우, 地域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豫想되는(計劃되고 있는) 諸情報(制度的, 行政的 計劃等)를 地域性 分析을 하는데 고려해야 하지만 이 점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II. 地域性 分析

1. 分析節次

本 研究에서 要因分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 安城郡의 研究對象 單位地域 187個 里를 「行」, 本 研究의 地域性 分析을 위한 두 基準 즉 農業度 指標로 選定한 20個 變數, 그리고 都市化度 指標로 選定한 16個 變數를 各各 「列」로 하여 187×20, 187×16의 資料行列을 作成하여 相關係數를 計算, 相關行列을 作成한다.

마찬가지로 邑面別 資料 역시 各各 13×12의 資料行列을 만든다.

ii) 계산된 相關行列은 要因分析을 하여 固有值(Eigenvalue) 1.0以上の 要因을 抽出하고, 이들 要因에 대해 원래 變數와의 相關關係 정도를 나타내는 要因負荷值(Factor Loading)行列을 구하며 共通度(Communality)를 산출한다.

iii) 要因의 해석을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要因을 回轉시키는데 本 研究에서는 直角回轉(Orthogonal Rotation) 방식의 배리맥스 回轉(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여 새로운 要因行列을 구하고, 各要因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계산된 固有值 1.0

이상의 각 요인별 요인점수의 계측결과와 각 요인의 변동 설명량을 가중치로 하여 새로 標準化된 要因點數 (Standardized Factor Score) 행렬을 계산한다.

iv) 地域性 分析 基準別 各 研究對象 單位地域의 農業 度와 都市化度는 固有值 1.0以上인 各各 第4要因(里別), 第2 要因(邑面別)까지의 點數의 合을 통해 제1等級은 $+ \frac{1}{3} S \cdot D$ 以上, 제2等級은 $-\frac{1}{3} S \cdot D \sim \frac{1}{3} S \cdot D$, 제3等級은 $-\frac{1}{3} S \cdot D$ 未滿으로 3個 等級化하여 要因點數의 分포패턴에 따라 地域을 類型化하였다.

2. 分析單位 및 指標

農村地域開發計劃의 樹立에 있어서 適正單位가 어느 規模라고 判定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제까지의 郡 및 邑面單位 農村綜合開發方式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上位(郡, 邑面)開發計劃과 對象地域의 地域的, 社會經濟的 特性과의 차이때문에 효과적

인 開發이 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安城郡의 里別 地域性과 邑面別 地域性을 分析·比較하였다.

農村地域의 特性 全體를 일괄하여 표현하는 指標를 선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農村空間의 時間的 變化에 따라 檢討, 考慮되어야 할 特徵的 要因이 무수히 많고 地域與件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農村地域의 綜合的 性格糾明을 할 수 있는 타당한 共通的인 指標設定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本 研究에서는 安城地域의 地域的 特性을 나타내는 合成變數를 作成하기 위해 먼저 그 構成要素가 되는 變數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統計指標를 選定하였다.

分析指標로서는 研究對象 單位地域의 特性을 나타낼 수 있는 變數로서 農業 및 農業을 둘러싼 環境條件을 나타내는 農業度 指標와 都市化의 進行에 의해 나타나는 都市化 度 指標이다.

가. 農業度 指標

<表 1> 農業的 性格을 나타내는 基礎資料

指標	指 標 名	單位	產 出 根 據 (年度)
X1	농가율	%	농가수 / 가구수 × 100 (1993년)
X2	농가수 증감율	%	1993년농가수-1983년농가수 / 1983년농가수×100
X3	경지면적율	%	경지면적 / 총면적 (1993년)
X4	담울	%	담면적 / 경지면적 × 100 (1993년)
X5	전울	%	전면적 / 경지면적 × 100 (1993년)
X6	농업진흥지역 지정율	%	농업진흥지역지정면적/농업보호지정면적/경지면적 × 100 (1993년)
X7	경지정리율	%	경지정리면적 / 경지면적 × 100 (1993년)
X8	수리안전담울	%	수리안전담면적/경지면적×100(1993년)
X9	휴경지율	%	휴경지면적/경지면적×100(1993년)
X10	경지면적 2ha이상 농가율	%	경지면적 2ha이상 농가수/농가수×100 (1993년)
X11	경지면적 0.5ha미만 농가율	%	경지면적 0.5ha미만 농가수/농가수×100 (1993년)
X12	호당경지면적	ha	경지면적 / 농가수 (1993년)
X13	농업인구율	%	농업인구 / 총인구 (1993년)
X14	29세이하 농업인구율	%	29세이하농업인구/농업인구×100(1993년)
X15	65세이상 농업인구율	%	65세이상농업인구/농업인구×100(1993년)
X16	남자농업종사자율	%	남자농업종사자 / 농업인구 (1993년)
X17	영농후계자율	%	영농후계자수 / 농업인구 (1993년)
X18	농기계보유수량 (규모)	점	농기계보유지수/경지면적(콤바인,트랙터 각7점,경운기 3점, 이앙기 1점씩 부여하여 계산함)
X19	호당농산물판매액	천원	농산물판매총가액 / 농가수 (1993년)
X20	농산물생산량(10a당)	kg	농산물총생산량/경지면적(단보당)(1993년)

나. 都市化度 指標

〈表 2〉 都市의 性格을 나타내는 基礎資料

指標	指標名	單位	產出根據(年度)
Y1	인구밀도	명/km ²	인구 / 총면적 (1993년)
Y2	인구증감율	%	1993년인구-1983년인구/1983년인구×100
Y3	가구당인구	명	인구수 / 가구수 (1993년)
Y4	가구수증감율	%	1993년가구수-1983년가구수/1983년가구수×100
Y5	비농가율	%	비농가수 / 가구수 × 100(1993년)
Y6	비농가증감율	%	1993년비농가-1983년비농가/1983년비농가×100
Y7	비농업인구율	%	비농업인구 / 인구 × 100 (1993년)
Y8	비농업인구증감율	%	1993년비농업인구-1983년비농업인구/1983년비농업인구×100
Y9	시설용지면적율	%	시설용지면적 / 총면적 × 100 (1993년)
Y10	접근편의성(도로통과지표)	점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함. 국도:4점, 지방도:3점, 군도: 2점, 면도:1점. (1993년)
Y11	행정서비스(읍(면)사무소)접근편의성	km	읍(면)사무소까지의 거리 (1993년)
Y12	의료서비스접근편의성	km	최근접 의료시설까지의 거리 (1993년)
Y13	교육서비스접근편의성	km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1993년)
Y14	복지시설수(1,000명당)	개	복지시설수 / 인구 (1993년)
Y15	생활편의시설수(1,000명당)	개	생활편의시설수/인구×1000(1993년)
Y16	지가상승율	%	1993년지가-1983년지가/1983년지가×100

3. 分析結果

가. 里別 分析結果

分析結果 農業度의 경우 要因의 固有值, 累積分析比率은 第1要因에서 第4要因까지 全體의 70.2%를 說明하고 있으며 都市化度의 경우는 79.3%를 說明하고 있다.

또한 各 基礎變數別 要因負荷值의 供給의 합인 共通度는 農業度 指標의 경우 X2, X17 等 2個의 變數를 제외하고는 모두 0.50 以上을 나타내고 있으며, 都市化度 指標의 경우에는 전부 0.50 以上이며 Y14가 0.56으로 가장 낮다.

都市化度의 要因分析結果는 農業度의 그것보다 各要因別 變數의 要因負荷值가 보다 분명함으로서 한 變數가 하나의 要因 以上에 위치한 變數가 없을 뿐만 아니라 各 變數의 要因負荷值도 하나의 變數(Y14)를 제외하고는 0.7以上으로 各要因別 變數間의 높은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要因分析의 目的은 많은 變數를 작은 數의 要因으로 縮約하고 抽出된 要因을 다른 分析에 이용하는데 있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要因點數를 추정하여야 한다. 本 研究에서는 要因分析의 結果 推정한 標準화된 要

因點數係數(Standardized scoring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地域類型의 區分은 同一한 單位地域에 대하여 農業度, 都市化度 各各 3個 階層別로 나누어 地域性을 파악하고 이들 두 基準의 組合에 의해 9個의 地域으로 나눈 후 〈表 3〉의 基準에 의해 地域性이 유사한 地域을 再分類하였다.

〈表 3〉 地域類型區分의 綜合模型

區 分	都 市 化 度		
	I	II	III
농 업 도	I	C	A
	II	U	C
	III	U	U

- 農業地域 : A
- 都市地域 : U
- 競合調整地域 : C

〈表 4〉는 農業度와 都市化度 組合에 의해 邑面別로 地

地域類型을 分類한 것이다.

表에서 볼 때, 研究對象 單位地域(里)은 각 邑面別로 9개의 地域類型中 4개의 類型이 가장 많고, 邑地域은 전체가 都市地域이다. 地域規模로 볼 때, 地域內 異質性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面은 元谷面, 古三面 地域이다.

農業도와 都市化도의 組合에 의해 地域類型을 區分한 결과에 의한 地域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I-U I ²⁸⁾ 地域은 安城邑의 隣接地域, 龍仁市의 隣接地域 그리고 최근 都市的 地域開發이 활발한 地域의 특징을 갖고 있다.

A I-U II 地域은 邑의 隣接地域, 他市郡과의 隣接地域 또는 面中心地와의 隣接地域으로 面中心地의 小生活圈이 형성되어 있는 地域이 대부분으로 이 地域은 農業的 與件도 양호하지만 交通이 발달한 地域이다.

A I-U III 地域은 位置的으로 安城郡의 平野地帶 및 山岳地帶가 대부분이다. 邑面別로 古루 분포하고 있으나 大德面이 이 類型의 地域이 없는 것은 邑隣接地域으로 都市的

開發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어 農業的 資源이 非農業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II-U I 地域은 農業的 與件은 비교적 불량하지만, 地理的 距離에 비해 接近性은 양호한 道路條件을 갖추고 있다.

A II-U II 地域은 邑의 隣接地域인 寶蓋面의 道路條件이 불량한 地域, 都市化 可能性은 크지만 農業的 條件이 양호한 地域, 交通이 편리한 山岳地帶란 特性을 갖고 있다.

A II-U III 地域은 地理的으로는 邑의 生活圈이나 農業上 有利한 條件에 의해 都市的 開發이 덜된 地域이 대부분으로 A I-U III 地域과 함께 農業與件이 양호하다.

A III-U I 地域은 邑地域 전체와 元谷面 성주리, 대구모 工業團地가 조성되어 있는 邑地域과 접해 있는 大德面 건지리가 여기에 속하다.

A III-U II 地域은 安城邑의 隣接地域으로서 平野地帶, 安城郡 동·서쪽에 小生活圈이 위치한 地域이다.

A III-U III 地域은 그 특징이 A II-U II 類型의 地域과 유사하다.

〈表 4〉 邑面別 地域類型(A + U)

單位 : 個里, (%)

	A-I U-I	A-I U-II	A-I U-III	A-II U-I	A-II U-II	A-II U-III	A-III U-I	A-III U-II	A-III U-III	
안성읍							1~25			25
보개면	46,	32,38,42, 45,		26,30,44,	27,28,31,33~ 37,39~41,43,	29,				21
금광면			49,52~59,61, 62,			47,48,50, 51,		60,		16
서운면		63~66,77,	67~76,							15
미양면	94,95,	88,93,	78~81,83~8 7,89,92			82,90,91,				18
대덕면		96~98,101,1 04,107,109,		102,	99,103,105,10 6,108,		100,			14
양성면	120,	118,119, 121~123,125 ,126	111~114 ,124		117,	110,115, 116,				17
공도면		130,134,	127~129 ,132,133, 135,			136,137,		131,		11
원곡면		144,	138,		142,145,	139~141,		143,		8
일죽면		151,	146~150,152 ,155~157,15 9,		154,	153,160,			158,	15
죽산면	166,167,	162,164, 168~170			163,165,			161,		10
삼죽면						171~177,179 ,180,			178,	10
고삼면		182,	185~187			181,184,		183,		7
계(%)	6(3.2)	35(18.7)	57(30.5)	4(2.1)	23(12.3)	29(15.5)	27(14.5)	4(2.1)	2(1.1)	187 (100.0)

註) 숫자는 研究對象 單位地域(里)의 고유 번호임.

나. 邑面別 分析結果

邑面別 地域性 分析指標은 앞서의 里別 地域性 分析結果와 等質性 程度를 비교하기 위해 本 分析方法의 理論的 前提를 감안하여 里別 分析의 二 基準에 의한 各各의 變數中 要因分析結果 各各의 要因의 要因負荷值가 상대적으로 높은 變數를 各各 12個씩 選定, 分析하였다.

農業度 指標의 要因分析 結果 說明되는 分散比率은 各各 第1要因이 70.8%, 第2要因이 16.3%로 전체의 87.1%를 說明하고 있고, 都市性 指標의 說明되는 分散比率은 各各 第1要因이 70.1%, 第2要因이 17.6%로 88.3%를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共通度는 모든 變數가 0.6以上이며, 대부분이 0.8以上이다.

〈表 5〉 農業度, 都市化度에 의한
邑面別 地域類型區分

區分	都市化度(U)		
	I	II	III
農業度(A)	I		양성면, 서운면, 미양면, 공도면, 일죽면
	II	보개면, 대덕면, 죽산면	원곡면, 금광면, 삼죽면, 고삼면
	III	안성읍	

邑面單位 地域類型 區分結果 9個 類型 가운데 安城郡의 13個 邑面이 위치하고 있는 類型은 6個 類型이고, 里 單位의 경우는 9個 類型이다.

安城邑은 里別 分析結果와 마찬가지로 AⅢ-UⅠ地域이다.

寶蓋面은 里別 分析結果에 의하면 AⅡ-UⅡ地域이 21個 里 가운데 12個 里로 57.1%를 차지하고 있는데 AⅠ-UⅡ地域이 4個 里에 불과하지만 이 類型으로 分類되었다.

金光面 역시 AⅠ-UⅢ地域이 11個 里로 전체의 68.8%나 되지만 불과 25.0%인 4個 里의 類型인 AⅡ-UⅢ地域으로 나타났다.

瑞雲面, 薇陽面, 孔道面, 一竹面은 가장 많은 里가 나타나고 있는 地域類型(AⅠ-UⅢ)과 本 分析結果와 일치하였다.

大德面은 里別 地域性 分析結果 AⅠ-UⅡ地域이 7개 里로서 가장 많고, AⅡ-UⅡ地域이 그 다음 순이었으나 邑面

單位 分析結果는 불과 1개 里의 類型인 AⅡ-UⅠ地域으로 分類되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陽城面은 AⅠ-UⅡ, AⅠ-UⅢ地域이 상대적으로 많은 里의 地域類型인데, 里單位 地域性 分析結果 가장 많은 AⅠ-UⅡ地域으로 分類되었다.

地域規模에 비해 매우 다양한 里別 地域類型을 보이고 있는 元谷面은 面單位 地域類型區分結果 AⅡ-UⅡ地域으로 나타나고 있다.

三竹面은 里別 地域性 分析結果와 일치하였다.

古三面 역시 元谷面의 경우와 같이 地域規模에 비해 매우 다양한 里別 地域類型을 보여주고 있는데 分析結果 2개 里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는 地域類型이 面單位 分析結果와 일치하였다.

以上の 里別 地域類型과 邑面別 地域類型과의 一致與否, 不一致할 경우 그 地域의 特性要因을 나타낸 것이 〈表 6〉이다.

里別 地域類型에서 邑面別 地域類型化로의 轉換은 各 邑面의 里別 農業度, 都市化度 各各의 要因의 平均을 要因說明力을 加重值로하여 계산, 4要因까지의 合을 통해 구한 값이다. 이렇게 구한 값을 標準偏差方法을 통해 3개로 等級化하여 類型化하였다.

여기서 볼 때, 里別 地域性 分析結果와 邑面 地域性 分析結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地域性이 분명한 都市地域(AⅢ-UⅠ) 및 農業地域(AⅠ-UⅢ)은 里別 分析結果와 邑面別 分析結果가 일치하여 各 邑面內의 里間 異質性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都市地域과 접하고 있으면서 安城郡을 동서로 잇는 國道가 통과하는 寶蓋面과 大德面은 地域性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이들 地域은 같은 面內의 里間에도 異質性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安城郡 서쪽으로 小生活圈 地域인 竹山面은 面中心 都市 隣近의 地域과 他地域과의 地域性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地形의 準山間地帶이면서 域外流出이 상대적으로 큰 元谷面과 陽城面의 地域性도 里別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邑面別 分析結果와 里別 分析結果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邑面別로 다양하다.

寶蓋面과 元谷面은 都市化的 要素가 地域內의 里別 地域性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表 6〉 두 지역별 지형(里別, 邑面)別 地域性 分析結果

구분	리별 지역유형						읍면별 지역유형						일치여부	(1)과 (2)의 불일치 요인	(1)과 (2)의 불일치 요인		
	농업도(A)			도시화도(U)			농업도(A)			도시화도(U)							
	제1요인	제2요인	제3요인	특정항계	제1요인	제2요인	제3요인	특정항계	종합유형(2)	제1요인	제2요인	제3요인	특정항계	종합유형(2)			
인상읍	-217964(Ⅱ)	-0.4299(Ⅱ)	-0.8624(Ⅱ)	-2.2617(Ⅱ)	21857(Ⅰ)	0.7024(Ⅰ)	-0.2896(Ⅱ)	1.2617(Ⅰ)	A(Ⅱ)-U(Ⅰ)	-3.2527(Ⅱ)	-0.0177(Ⅱ)	-0.5629(Ⅱ)	-2.4022(Ⅱ)	A(Ⅱ)-U(Ⅰ)	O	X	X
보계면	0.0666(Ⅱ)	0.2741(Ⅰ)	-0.2091(Ⅰ)	0.5416(Ⅰ)	-0.1252(Ⅱ)	-0.1346(Ⅱ)	1.1209(Ⅰ)	0.0448(Ⅱ)	A(Ⅰ)-U(Ⅱ)	0.0961(Ⅰ)	0.0972(Ⅱ)	0.0961(Ⅰ)	0.0972(Ⅱ)	A(Ⅱ)-U(Ⅰ)	X	X	X
금곡면	0.4826(Ⅰ)	-0.1900(Ⅱ)	-0.3018(Ⅱ)	0.3120(Ⅰ)	-0.7005(Ⅱ)	0.0213(Ⅱ)	-0.4694(Ⅱ)	-0.2237(Ⅱ)	A(Ⅰ)-U(Ⅱ)	0.2296(Ⅰ)	0.1494(Ⅱ)	-0.4510(Ⅱ)	-0.4247(Ⅱ)	A(Ⅱ)-U(Ⅱ)	X	X	O
서운면	0.7178(Ⅰ)	0.0752(Ⅱ)	-0.3756(Ⅱ)	0.2128(Ⅱ)	-0.5294(Ⅱ)	-0.1016(Ⅱ)	0.0529(Ⅱ)	-0.1174(Ⅱ)	A(Ⅱ)-U(Ⅱ)	0.2661(Ⅱ)	0.3431(Ⅰ)	0.2442(Ⅰ)	-0.4579(Ⅱ)	A(Ⅰ)-U(Ⅱ)	X	X	O
막양면	0.3717(Ⅰ)	1.0091(Ⅰ)	-0.5460(Ⅱ)	0.8561(Ⅰ)	-0.3023(Ⅱ)	-0.1182(Ⅱ)	-0.0768(Ⅱ)	-0.6534(Ⅱ)	A(Ⅰ)-U(Ⅱ)	0.3450(Ⅰ)	1.0851(Ⅰ)	0.4186(Ⅰ)	-0.4431(Ⅱ)	A(Ⅰ)-U(Ⅱ)	O	X	X
마덕면	0.2016(Ⅰ)	0.3245(Ⅰ)	-0.3303(Ⅱ)	0.3963(Ⅰ)	-0.0619(Ⅱ)	-0.0246(Ⅱ)	0.4416(Ⅰ)	-0.0177(Ⅱ)	A(Ⅰ)-U(Ⅱ)	0.4492(Ⅱ)	0.4898(Ⅰ)	0.1838(Ⅱ)	0.2761(Ⅱ)	A(Ⅱ)-U(Ⅰ)	X	X	X
양성면	0.4796(Ⅰ)	-0.2200(Ⅱ)	0.3487(Ⅰ)	0.4003(Ⅰ)	-0.2893(Ⅱ)	-0.2806(Ⅱ)	-0.0964(Ⅱ)	0.0373(Ⅱ)	A(Ⅰ)-U(Ⅱ)	0.3184(Ⅱ)	0.0366(Ⅱ)	0.2318(Ⅰ)	-0.3712(Ⅱ)	A(Ⅰ)-U(Ⅱ)	X	O	X
공도면	0.2846(Ⅰ)	0.1747(Ⅱ)	0.3570(Ⅰ)	0.0640(Ⅰ)	-0.2090(Ⅱ)	-0.0520(Ⅱ)	-0.6498(Ⅱ)	-0.2103(Ⅱ)	A(Ⅰ)-U(Ⅱ)	0.2926(Ⅱ)	0.3332(Ⅰ)	0.2718(Ⅰ)	-0.1761(Ⅱ)	A(Ⅰ)-U(Ⅱ)	O	X	X
원곡면	0.1926(Ⅱ)	-0.1381(Ⅱ)	0.8316(Ⅰ)	-0.3891(Ⅱ)	-0.1622(Ⅱ)	0.1098(Ⅰ)	-0.0591(Ⅱ)	-0.3224(Ⅱ)	A(Ⅱ)-U(Ⅱ)	0.0969(Ⅱ)	-0.0631(Ⅱ)	0.0668(Ⅱ)	-0.1384(Ⅱ)	A(Ⅱ)-U(Ⅱ)	X	X	O
일죽면	0.4357(Ⅰ)	0.2454(Ⅰ)	0.0234(Ⅱ)	0.1320(Ⅱ)	-0.5566(Ⅱ)	-0.1159(Ⅱ)	-0.4013(Ⅱ)	-0.3513(Ⅱ)	A(Ⅱ)-U(Ⅱ)	0.1671(Ⅱ)	0.7450(Ⅰ)	0.2275(Ⅰ)	-0.5425(Ⅱ)	A(Ⅰ)-U(Ⅱ)	X	X	O
죽산면	0.3771(Ⅰ)	0.1449(Ⅱ)	0.4334(Ⅰ)	0.0661(Ⅱ)	0.1779(Ⅱ)	-0.1394(Ⅱ)	0.9137(Ⅰ)	-0.0082(Ⅱ)	A(Ⅱ)-U(Ⅱ)	0.1853(Ⅱ)	0.4821(Ⅰ)	0.2099(Ⅱ)	0.0901(Ⅱ)	A(Ⅱ)-U(Ⅰ)	X	O	X
삼죽면	-0.0614(Ⅱ)	-1.1916(Ⅱ)	1.9119(Ⅰ)	-0.0103(Ⅱ)	-0.7940(Ⅱ)	-0.1359(Ⅱ)	-0.5906(Ⅱ)	-0.3639(Ⅱ)	A(Ⅱ)-U(Ⅱ)	0.6167(Ⅰ)	-2.2206(Ⅱ)	0.0840(Ⅱ)	-0.7625(Ⅱ)	A(Ⅱ)-U(Ⅱ)	O	X	X
고삼면	0.2081(Ⅱ)	-1.0170(Ⅱ)	1.4364(Ⅰ)	0.3076(Ⅰ)	-0.5058(Ⅱ)	-0.2356(Ⅱ)	-0.0463(Ⅱ)	-0.3119(Ⅱ)	A(Ⅰ)-U(Ⅱ)	0.7318(Ⅰ)	-1.8872(Ⅱ)	0.2177(Ⅱ)	-0.4470(Ⅱ)	A(Ⅱ)-U(Ⅱ)	X	X	O
S·D	0.69	0.55	0.78	0.69	0.72	0.24	0.56	0.32		0.96	0.96	0.68	0.68				

陽城面은 地域的으로 광범위하여 都市의 性格이 面中心 地域과 他地域과의 차이에 의해 두 分析單位間的 差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寶蓋面과 大德面은 모두 面單位 分析結果와 別別 分析結果가 正反對로 나타나고 있어 이 두가지 要素의 競合이 가장 치열하다.

Ⅲ. 地域開發方向

<表 3>의 地域類型區分의 綜合模型에 의한 地域別 開發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 農業地域은 農業的 條件이 양호한 地域으로 장래에도 農業的 資源利用 및 開發을 유도하여 都市化的 性格

變化를 가져오는 要因을 억제해야 할 地域이다.

둘째, 都市地域은 현재 都市化가 어느정도 進行되었으며 장래에도 非農業的 活動을 中心으로 開發해야 할 地域이다.

셋째, 競合調整地域은 農業的 與件 뿐만 아니라 都市化的 與件도 매우 양호하여 地域開發 方向設定에 競合이 發生하는 地域으로 兩者의 特性을 살리면서 效率的인 地域開發을 도모하기 위해 調整이 필요한 地域이다.

本 研究의 分析結果에 의해 別別 地域類型과 邑面別 地域類型과의 一致與否, 不一致할 경우 그 理由, 그 調整方向 및 不一致 與否를 통해 최종적인 農村地域開發方向을 위해 設定한 地域을 보여주는 것이 <表 7>이다.

單位地域을 달리한 地域性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은 몇

<表 7> 里 및 邑面별 두 地域單位의 分析結果를 고려한 農村地域開發圈域의 設定方向

區分	別別地域類型(1)	邑(面)別地域類型(2)	(1)과 (2)의 一致 與否	<表 3>의 綜合的 地域類型 區分에 의한 同質性 與否(3)	(3)의 不一致 與否	地域開發單位	調整方向	地域類型別 開發方向
안성읍	A(Ⅲ)-U(I)	A(Ⅲ)-U(I)	O	O		읍		도시지역
보개면	A(I)-U(Ⅱ)	A(Ⅱ)-U(I)	X	X	A,U	면이하	(1)+(2)	농업지역, 도시지역
금광면	A(I)-U(Ⅲ)	A(Ⅱ)-U(Ⅲ)	X	O		면		농업지역
서운면	A(Ⅱ)-U(Ⅲ)	A(I)-U(Ⅲ)	X	O		면		농업지역
미양면	A(I)-U(Ⅲ)	A(I)-U(Ⅲ)	O	O		면		농업지역
대덕면	A(I)-U(Ⅱ)	A(Ⅱ)-U(I)	X	X	A,U	면이하	(1)+(2)	농업지역, 도시지역, 경합조정지역
양성면	A(I)-U(Ⅲ)	A(I)-U(Ⅱ)	X	O	U	면		농업지역
공도면	A(I)-U(Ⅲ)	A(I)-U(Ⅲ)	O	O		면		농업지역
원곡면	A(Ⅲ)-U(Ⅱ)	A(Ⅱ)-U(Ⅱ)	X	X	A	면이하	(1)+(2)	농업지역, 경합조정지역
일죽면	A(Ⅱ)-U(Ⅲ)	A(I)-U(Ⅲ)	X	O		면		농업지역
죽산면	A(Ⅱ)-U(Ⅱ)	A(Ⅱ)-U(I)	X	X	U	면이하	(1)+(2)	농업지역, 도시지역
삼죽면	A(Ⅱ)-U(Ⅲ)	A(Ⅱ)-U(Ⅲ)	O	O		면		농업지역
고삼면	A(I)-U(Ⅲ)	A(Ⅱ)-U(Ⅲ)	X	O		면		농업지역

註) A : 農業度, U : 都市化度

가지 特徵으로 要約된다.

첫째, 都市地域(AⅢ-UⅠ) 또는 農業地域(AⅠ-UⅢ, AⅡ-UⅢ) 등으로 地域의 性格이 뚜렷한 地域은 邑面 및 里別 地域性 分析結果가 一致하였다.

둘째, 그 외 類型의 地域은 같은 面內에서의 地域의 異質性이 커 面의 地域的 等質性을 前提로 한 面單位 開發은 制限이 있다.

셋째, 같은 面內의 地域의 異質性이 나타나는 理由는 都市化的 要素보다 農業的 要素가 보다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農業的 要素가 都市化的 要素에 의해 큰 變化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安城郡의 13개 邑面中 邑面內 地域의 性格이 다양한 混在地域은 4個面이다. 이들 面의 特性은 安城邑의 隣接 地域이면서 道路條件이 비교적 양호한 寶蓋面, 大德面과 平澤·松炭·龍仁의 隣接地域으로 실제 生活圈이 이들 地域인 元谷面, 安城郡의 東部 生活圈域인 竹山面 等이다.

다섯째, 같은 面內의 地域(里)間 等質的 地域性을 나타내는 地域의 特性은 都市地域(邑地域), 地形的으로 平野地帶 또는 山間地帶로서 農業地域이다.

반대로 같은 面內의 地域(里)間 異質性이 큰 地域은 地理的으로 都市隣接地域, 道路條件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地域, 中心都市가 발달한 地域, 準山間地帶이다.

以上の 內容을 綜合해 볼 때 앞으로 農村地域開發을 위한 地域單位設定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內容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經驗的으로 地域의 性格이 분명한 地域은 邑面單位 地域開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都市化, 産業化의 影響에 의해 地域性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 地域은 面單位 地域開發보다는 같은 面內의 地域的 等質性을 고려, 圈域別(地區別) 地域開發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位置的으로 都市地域과 隣接한 地域의 開發은 農業的 開發要求와 都市的 開發要求가 競合되므로 地域의 自然立地的, 社會經濟的 特性을 考慮, 地域的 等質性을 前提로 한 圈域別 地域開發이 요구된다.

IV. 結論

本 研究은 급변하는 農村의 地域開發計劃樹立을 위한 地域範圍設定의 妥當性을 檢討하기 위해 邑面을 地域單位를 基準으로 하는 地域性 分析結果와 里別 地域單位로 한

그것과 比較, 앞으로의 地域的 特性에 따른 開發圈域範圍를 導出하였다.

그 結果 既存 綜合的 性格의 農村地域開發計劃樹立을 위한 面單位以上の 開發計劃單位는 오늘날과 같이 커다란 變化를 경험하고 있는 農村地域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安城郡의 地域的 性格은 1993年 現在 都市化的 要素보다 農業的 要素에 보다 큰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地理的 位置, 接近性, 生産基盤 등의 條件은 都市地域뿐만 아니라 農業地域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農業生産의 特化와 商業的 營農을 보다 확대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農業的 要素보다는 都市化的 要素에 보다 큰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安城郡의 各 邑面別 里別 區分된 地域類型이 다양하게 나타나 주로 都市化的 要素에 의해 地域間 異質性이 커지고 있다. 分類한 里別 地域類型을 볼 때 安城邑이 1個 類型, 瑞雲面이 2個의 類型區分으로 적고, 寶蓋面, 陽城面, 元谷面, 一竹面 等은 5個의 地域類型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面地域內에서 地域의 地理的 形狀, 接近性, 地域資源賦存狀況 等에 따라 異質性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邑의 隣接地域과 平澤·松炭市에 접해 있는 元谷面의 面地域內 里間의 地域性이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結果는 邑面單位 地域性 分析結果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面中心의 農村地域開發方式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本 研究은 農村地域開發을 위한 地域類型化過程에서 農村地域의 地域的 性格變化로 等質的 地域範圍가 크게 축소됨을 前提로 하였다. 그러므로 既存의 行政單位인 郡 또는 邑面을 單位로 한 地域類型化의 巨視的 接近方法이 아닌 分析單位를 小地域化하여 微視的 分析을 함으로서 몇 가지 研究上의 限界點을 갖고 있다. 分析單位를 달리함에 따라 指標가 달라져야함에도 불구하고 同一한 資料를 가지고 分析한 점, 1993年 現在時點의 橫斷面分析으로 급변하는 農村地域의 動態的 分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要因分析에 의한 類型化技法의 不充分 問題 等이 앞으로 補完되어야 할 점이다.

註

1) 安城郡의 法定里數는 189個이지만, 本 研究에서는 安城

- 문의 實旺里는 堂旺里로, 陽城面의 照日里는 楸照里로 統合하여 調査, 分析하여 187個里이다.
- 2) 국토개발연구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제2편, 1982.
 - 3) 최양부, 농촌개발과 농촌계획, 국토계획, 18권 2호, 1983.
 - 4) 유우익, 국토개발에 있어서 농촌개발의 의의, 지리학, 제30호, 1984.
 - 5) 유병서외, 농의소득증대를 위한 종합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 82-07, 1982.
 - 6) 최양부 외,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KREI, 연구보고 109, 1985
 - 7) 최수명, 한국농촌의 정주권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8) 이정환, 한국농촌지역의 유형구분,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9) 정안성, 농촌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10) 박병태, 농촌지역의 개발계획을 위한 기법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1) 김경수, 양산군의 지역성분석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2) 유우익, 농어촌지역의 공간의 특징과 농촌환경 개발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지역종합개발연구의 과제, 1985, pp.70~73.
 - 13) 농촌지역종합개발이란 농촌의 산업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농촌정주생활권을 개발단위로 한다. 이는 지방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주적 개발에 의해, 주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선정하며, 적정기술과 한계자원을 이용하여, 종합적, 영역적, 계획적으로 개발함을 의미한다.
 - 최양부, 국토개발전략의 전환과 농촌지역종합문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지역종합개발연구의 과제, 1985, pp.10~14.
 - 14) 유우익, 앞의 논문, pp. 37~38. 1984.
 - 15) 이명수, 한국 소도시의 특성과 개발전략에 관한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0. 1974.
 - 16) 송인성, 지역개발을 위한 하위권역설정과 소도시개발에 관한연구 -광주권을 중심으로-, 서울대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2 ~123. 1975.
 - 17) 최재돈,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개발의 기본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3. 1975.
 - 18) 정환용, 기초수요전략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 16권 1호, p. 20, 1981.
 - 19) 황희연, 중소도시의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한국전통문화의 문제 -제주시의 지역적 독자성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19권 2호, p. 143. 1984.
 - 20) 최양부, 앞의 논문, p. 182, 1983.
 - 21) 유우익, 앞의 논문, 1984, pp.37~38
 - 22) Randinelli, D.A., Equity, Growth, and Development-Regional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51, No.4, pp.434~435. 1985.
 - 23) 本 研究에서 農業度를 A, 都市化度를 U라 한다. 以下 同一하다.

參 考 文 獻

1. 國土開發研究院, 地域計劃技法研究, 1980.
2. 國土開發研究院, 地域分析을 위한 計量的 接近方法, 1981.
3. 김기영외, SAS 因子分析, 자유아카데미, 1990.
4. 김두섭, 社會科學을 위한 回歸分析, 法文社, 1994.
5. 金仁, 農村地域 面級都市 機能活性化를 위한 研究, 韓國學術振興財團, 1987.
6. 金仁, 現代 人文地理學, 法文社, 1991.
7. 金泰鏞, 地域開發에 있어서 下位定住空間體系의 分析 및 設定에 관한 研究, 서울대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8. 金鴻允外, 新農村開發을 위한 農學, 工學的 定住生活圈模型의 開發(Ⅱ) - 土地利用計劃 -, 韓國 農工學會誌, 第35卷 第3號, 韓國農工學會, 1993.
9. 農漁村振興公社, 農漁村中心마을 定住體系의 開發 및 整備(1): 중심마을의 空間的 機能的 體系를 中心으로, 1992.
10. 農漁村振興公社, 現代地域計劃論 - 都市·農村土地利用調整과 環境問題-, 1994.
11. 朴炳太, 農村地域의 開發計劃을 위한 技法研究 - 順興地域을 中心으로 -, 서울대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12. 박시현외, 地域特性을 고려한 農漁村마을 整備方案, 研究報告 R31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5.
13. 安城郡, 安城郡 統計年報, 各年度
14. 安城郡 農業綜合開發計劃, 1995.
15. 吳澤燮, 사회과학데이터분석법, 도서출판 나남, 1993.
16. 유상건외, 農漁村마을 綜合開發方案研究, 農漁村振興公社, 1995.
17. 李正煥, 韓國農村地域의 類型區分, 慶熙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7.
18. 李喜演, 地理統計學, 法文社, 1991.
19. 장지인외, SAS/PC를 이용한 統計資料分析, 法文社, 1993.
20. 丁安聲, 農村開發計劃樹立을 위한 地域類型區分에 관한 研究 - 全北地域 邑面單位에 대한 多變量 分析法의 應用-, 全北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21. 崔洙明, 韓國農村의 定住圈開發戰略에 관한 研究, 서울대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4.
22. 黃漢結外, 郡單位地域 土地利用計劃의 合理的 策定을 위한 土地適性區分 (I) - 土地適性區分의 方法論的 考察-, 農村計劃 第1卷 第1號, 韓國農村計劃學會, 1995.
23. 農林統計協會, 農村計劃學의道, 1993.
24. 山村悅夫, 地域計劃論 - 地域計劃理論의受容と變容-, 大明堂, 1980.
25. 星野 敏, 地域分級の評價手法にする基礎的 研究, 岡山大學 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1988.
26. 村山祐司, 地域分析 - 地域の見方·讀み方·調べ方-, 古今書院, 1990.
27. Gorsuch, R.L., Harman, H.H., Modern Factor Analysis, Thir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28. Isard W., Location and Space Economy, The MIT Press, 1956.
29. Rondinelli D.A., Applied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The Spatial Dimensions of Development Policy-, Westview Press, 1985.
30. Kruskal, J.B., Factor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s : Bilinear Method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tatistics, Edited by W.H.Kruskal & J.M.Tanur, Free Press, 1978.